

이소영의 '우리지역 우리식물'



숲에서 만나는 고양이의 눈 '영광의 팽이눈'

식물 세밀화를 그리기 전에 지켜야 하는 몇 가지 규칙이 있다. 나무의 경우 3년지까지 그려야 하고, 식물의 전체 모습에는 꽃이나 열매 같은 생식기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민할 것이다. 그리고 왜 이들이 좋으나 못한다면 이로부터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답할 것이다. 꽃이 고양이의 눈을 닮아 고양이 눈에서 팽이눈이 되어버린 식물. 이들은 이름만큼 삶의 형태도 매력적이다.

수 있지만 잎이 나는 모양, 털의 유무, 수술의 개수 등이 모두 다르다.

내가 그동안 그려온 식물 중 크기가 가장 작은 종은 애기팽이눈이었다. 지상부 높이가 5센티도 되지 않는 이들을 세로 30센티 이상의 종이에 확대해 그리기 위해 나는 더욱 세밀히 관찰해야 했다.

우리는 흔히 꽃의 구조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꽃잎이나 꽃받침, 화피가 아름다울 때 비로소 꽃이 아름답다 느낀다. 하지만 팽이눈의 꽃받침 조각은 화려함과 거리가 멀다. 오히려 꽃 내부가 더 눈에 띈다. 노란 고양이 눈 안에 들어 있는 금빛 수술은 애니메이션의 반짝이는 눈동자 디테일처럼 빛난다.

나는 팽이눈속 중 대표종인 팽이눈을 만난 적이 없다. 이들은 1913년 식물학자 나카이카데노신 의해 한라산에 분포한다고 보고된 후 우리나라에서 실제 자생지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2018년 영광에서 팽이눈의 자생지가 발견되었다. 팽이눈은 수술이 네 개이며 몸 전체에 털이 없다고 한다.

이중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꽃 피기도 작고 화려하지 않고, 향기도 나지 않는 이 식물은 어떻게 매개동물을 불러들여 수분을 하는 걸까? 팽이눈은 꽃 주변의 잎을 노란색으로 바꿔 꽃을 더 커 보이게 한다. 꽃에서부터 잎으로 이어지는 연노랑 그라데이션 때문에 꽃 주변 잎이 꽃의 연장선처럼 보인다. 이것이 팽이눈이 동물의 이목을 사로잡는 방법이다. 그리고 노란 잎은 해야 할 일(수분)을 마치면 원래의 녹색으로 돌아온다.

팽이눈속 식물의 특별한 꽃이 지면 열매가 맺을 것이니. 오목한 접시 형태의 열매 안에는 작은 씨앗들이 고이 담겨 있을 것이고, 비가 내리거나 개울의 물이 튀면 물방울은 열매 접시에 떨어져 씨앗은 멀리 튕겨 나갈 것이다. 물론 모든 씨앗이 멀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지나 열매가 썩으면 차마 튕겨 나가지 못한 씨앗은 땅에 똑 떨어져 고이 불릴 것이다. 그렇게 팽이눈은 다음 해 또 다음 해에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물론 무척 작다 작아 보고자 하는 이들에게만 나타날 고양이의 눈일 테지만 말이다.

우리나라에는 가지팽이눈, 잎이 마주나는 누른팽이눈, 줄기에 흰 털이 있는 흰털팽이눈 그리고 꽃의 크기가 아기처럼 작은 애기팽이눈, 고혈압, 비만 등을 원인으로 하는 아주 복합적인 질환으로써, 이중 나이가 가장 확실한 위험으로 알려져 노년층 성인의 눈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이다.

이제 팽이눈속 식물들의 꽃이 지면 열매가 맺을 것이니. 오목한 접시 형태의 열매 안에는 작은 씨앗들이 고이 담겨 있을 것이고, 비가 내리거나 개울의 물이 튀면 물방울은 열매 접시에 떨어져 씨앗은 멀리 튕겨 나갈 것이다. 물론 모든 씨앗이 멀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지나 열매가 썩으면 차마 튕겨 나가지 못한 씨앗은 땅에 똑 떨어져 고이 불릴 것이다. 그렇게 팽이눈은 다음 해 또 다음 해에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물론 무척 작다 작아 보고자 하는 이들에게만 나타날 고양이의 눈일 테지만 말이다.

<식물 세밀화가>

의료칼럼

눈에 맞는 주사,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현호 보라안과병원 원장

으로는 당뇨병성 황반부종, 망막혈관 폐쇄성 황반부종 및 포도막염이 있고 특히 녹내장, 당뇨망막병증과 함께 3대 실명 질환으로 불리는 황반변성 치료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황반변성은 노년층 실명 1위 질환으로 나이, 흡연, 가족력, 고혈압, 비만 등을 원인으로 하는 아주 복합적인 질환으로써, 이중 나이가 가장 확실한 위험으로 알려져 노년층 성인의 눈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이다.

비비의 등의 행동을 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되며, 처방받은 항생제 안약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점안해야 한다.

의젓한 어린아도, 늙은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무서운 존재가 있으니, 바로 주사다. 병원에 가면 주사 바늘 앞에서 고개를 옆으로 돌린 채 어린아이처럼 두 눈을 짙게 감거나, 괜히 다른 곳을 응시하면서 긴장하지 않은 척 하는 어른들의 모습은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남녀노소 모두가 두려워하는 주사 치료를 안과에서도 사용하는데, 바로 안구 내 약물 주입술이다.

황반변성은 신생 혈관이 없는 건성 황반변성과 신생 혈관을 동반하는 습성 황반변성으로 구별할 수 있다. 건성 황반변성은 아직 시력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루테인, 지아잔틴이 포함된 항산화 비타민제 복용을 권장한다. 항산화 비타민제가 황반변성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지만, 진행 속도를 더디게 하는 효과는 있다. 반면 습성 황반변성에서는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른 비정상적인 신생 혈관이 자라게 되는데, 이 혈관은 약하고 터지기 쉬워 급격한 시력 저하를 유발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치료가 요구된다. 이 때 주사 치료 시행되는데,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시력 유지 및 항상을 위해 발병 첫해에는 평균 7~8회 정도 주사하는 게 일반적이고 이후에도 일 년에 3~4회 정도는 꾸준히 안구 내 항체 주사를 맞아야 한다.

주사 후 안대 착용이 꼭 필요하진 않지만 의도치 않게 손으로 눈을 만질 위험이 있다면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단 통증, 충혈,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는 즉시 안과에 내원해야 한다. 특별히 가릴 음식은 없지만, 음주와 흡연은 가능한 1주일 동안은 피해야 한다. 질병의 경과 자체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을 권한다.

안구는 각막·홍채·수정체·망막·포도막·유리체로 이루어져 있다. 유리체는 점성이 있는 액체로서 안구의 형태 유지와 충격 흡수 역할을 한다. 약물 복용이나 혈관 주사로 눈 속 깊은 곳에 위치한 망막에 약물 성분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데, 이 유리체강 내로 약물을 주사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안구 내에서 빠르게 작용할 수 있어서 망막 관련 질환 치료에 효과적이다.

주사를 맞은 후 관리도 중요하다. 관리가 소홀할 경우 안구 내 염증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손을 철저히 세척하고, 주사 후 3~7일량은 세수를 하거나 눈을

주사를 맞은 다음 날부터 특별한 제약 없이 가벼운 운동과 같은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하다. 다만 주사 후 초기에 이물감, 안구 불편감이 있는 경우에는 빠른 회복을 위해 눈을 쉬어 주는 게 필요하다.

유리체강 내 주입술은 항체 주사로 알려진 특수 약제를 눈 안에 주사하고, 효과가 미미하면 스테로이드 안 내 주사 치료를 시도한다. 주사 치료를 시행하는 질환

안과 질환 특성상 완치가 어렵고 치료 기간이 긴 만큼 항체 주사를 맞다가 임의로 중단하거나, 시간이 지나 약화된 상태로 안과에 다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치료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으로 적시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리체강 내 주입술은 항체 주사로 알려진 특수 약제를 눈 안에 주사하고, 효과가 미미하면 스테로이드 안 내 주사 치료를 시도한다. 주사 치료를 시행하는 질환

주사는 언제나 피하고 싶고, 눈에 직접 주사를 찌러 넣다 보니 두려워하거나 통증을 걱정할 수 있다. 하지만 마취 안약을 점안하여 마취하고, 머리카라 굽기의 매우 가느다란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망막 전문 의료진이 안전하게 시술이 진행되고,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며 시술 시간도 짧으니 두려워 말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기를 바란다.

기고

대한의 역군 4·19 영웅들



이병열 4·19 민주혁명기념사업회장

적 불만이 누적된 데 있었다. 혁명의 도화선은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에서 3인조 투표, 야당 참관인 축출 등 부정 선거를 자행하는 자유당의 작태를 목격한 민주당원과 시민들에 의해 점화됐다. 민주당원들은 선거 무효 선언 후 12시 40분경 머리에 두건을 쓰고 1000여 명의 학생·시민과 함께 '목 민주당의 장승 데모'를 하며 전남도청을 향해 행진했다. 금남로에서 경찰과 충돌로 이필호 의원 등 다수가 붙잡혀 갔고 조계현 씨가 총대에 맞아 쓰러졌다. 그로부터 세 시간 뒤 마산에서도 3·15 부정선거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그때 마산상고 김주영 학생이 행방불명됐다가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낚시꾼에 의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로 발견됐다. 이 사건이 전국에 보도되자 경찰의 잔혹성에 전 국민이 치를 떨었다.

는 구 도청 앞 광장과 금남로에 모여든 학생들이 경찰들과 투석전·육탄전을 벌였다. 경찰은 최루탄, 물대포 소방차, 공포탄을 앞세워 밀고 밀리기를 반복했다. 밤 9시 20분경 광주경찰서 앞에 운집한 데모대에 경찰 돌격대가 실탄 사격을 하면서 일곱 명의 사망자와 59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전국적으로는 186명의 사망자와 6026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급기야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고 1960년 7월 29일 제2공화국이 출범했다.

4·19 민주 혁명을 이룬 4년 영웅들은 6·25 전쟁을 체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잔혹하고 끔찍한 동족상쟁의 잔인무도한 살상과 폭력에 따른 공포, 동족간 불신이 만연한 가운데 북한군에 점령당한 상태에서 생활했다. 유엔군과 국군이 연합해 국토를 수복한 뒤에도 시골 지역은 밤이면 산에 숨어 있던 빨치산의 습격이 잇따랐다. 그 속에서 불안과 공포, 전쟁의 비극과 비참함을 누구보다 깊이 느낀 세대다. 따라서 우리 조국에 다시는 6·25와 같은 비극의 전쟁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4·19 영웅들의 강한 의지다.

이러한 4·19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초석이 됐고 4·19 민주 이념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4·19 영웅들은 6·25 전쟁의 폐허 속에 못 먹고, 못 입고, 못 신고 구호물품으로 어렵게 생활한 세대다. 그러면서도 1960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민주화의 초석을 다졌다. 헌법 전문에 3·1 독립운동과 더불어 4·19 민주 이념이 국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유다.

4·19 영웅들은 6·25 전쟁 이후에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 왔다. 1966년부터 월남전쟁에 다수가 참전했다. 박정희 시대는 경제 발전을 위해 독일 광부로 갔고, 중동 건설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국가 경제 부흥을 위해 노력했다. 경제 성장의 최전선에서 산업화 역군으로서 국가의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공시켜 나라 발전에 기여했다.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을 이룩한 대한민국의 역군이었다.

4·19 민주 혁명을 초래한 근본 원인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끄는 자유당 독재 정권의 무도한 부정부패에 국민

이제 80대가 된 4·19 영웅들은 아무런 보상도 혜택도 받지 못한 채 4·19 정신과 민주 이념을 후배들에게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늘 애국애족을 생각하고 나라의 무궁한 발전을 염원하며 환혼 길을 걷고 있다. 이들에 대한 보존 차원의 국가적 지원이 아쉽다.

社說

필수 인력 부족에 커지는 의료 공백 방치할 건가

전국 최악의 의료 취약지로 꼽히는 전남 지역 공공 의료 서비스의 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고질적인 공중보건(이하 공보) 및 공공 간호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진료 공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영에 불과하다. 순천·목포의료원은 도시 지역이라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만성적인 간호 인력 부족은 마찬가지다.

전남 지역에서 올해 복무가 만료되거나 타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공보의는 모두 275명이다. 하지만 새로 편입된 공보의는 250명(의과 110명, 치과 52명, 한의과 88명)이고 다른 지역에서 전입하는 인원을 포함해도 252명에 그쳐 23명이 부족하다. 의과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새로 편입·전입한 의과 공보의는 110명인데, 복무 만료나 타 지역 이전 인원은 145명에 달해 무려 34명이 공백 상태다.

이를 반영하듯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분석 결과 전남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 등 5개 필수 과목의 전문의와 의료 기관이 부족해 전국에서 의료 공백이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꼽혔다. 의료 인력 부족으로 전남 주민들은 필요한 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불편을 겪고 있다. 연간 80만 명이 진료를 위해 광주·서울 등 대도시를 찾으면 서 그에 따른 유출 비용만 1조 30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전남도는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응급 의료기관의 전문의나 공보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분산 배치된 공보의의 순회 진료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의료원의 간호 인력난도 개선될 기미가 없다. 강진의료원은 간호사 정원이 76명이지만 현원은 68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이 커졌지만 정부 대응은 미진하기만 하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차별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지역 의사를 늘려 의료 공백을 서둘러 메워야 할 것이다.

장애인 접근 어려운 행정센터 개선 서둘러야

광주·전남 지역 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행정복지센터 대다수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복지센터는 예전의 동사무소로, 단순히 행정 업무만 보는 곳이 아니라 주민 복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곳이다. 특히 장애인 등록부터 활동 지원, 연금 신청, 보조기기 지원 신청 등 장애인 관련 각종 행정 업무를 보는 곳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수시로 드나들어야 하는 공공기관이다.

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접근성도 문제지만 화장실 등 부대시설도 형편없었다. 30곳 중 일곱 곳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따로 없었고 화장실이 있는 23곳 중에서도 사용 가능한 곳은 세 곳에 그쳤다. 있더라도 내부가 좁거나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잠겨 있는 곳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연대 등 관련 단체가 휠체어를 타고 광주 20곳, 전남 10곳의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해 본 결과는 충격적이다. 30곳 중 29곳의 센터가 건물 2층 이상에 있는데도 승강기가 있는 곳은 네 곳에 불과했다. 승강기 대신 경사로가 있더라도 가팔라 휠체어 탄 장애인이 혼자 이용하기 힘들고 경사로조차 없는 곳은 직원을 호출해야 했다. 이 정도면 휠체어 탄 장애인은 이용하

모니 현황의 최일선인 공공기관이 이 정도라면 일반 건물은 말할 것도 없다. 모니터링에 참가한 장애인 활동가들이 행정복지센터에 가기도 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부터 한다는 말이 빈번이 아니라 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이 정도면 휠체어 탄 장애인은 이용하기 어렵다.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벽을 없애는 이른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행정복지센터도 무장애 인증 대상에 포함시켜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 증진에 나서야 할 것이다.

無等鼓

요즘처럼 누구나 비행기를 타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였다. 보잉, 더글러스 등 항공사들이 군용기와 함께 여객기를 만들어 내기 시작하고, 공항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라이트 형제는 1903년 동력 비행기를 개발하면서 이 신기한 기계의 효용을 잘 알고 있었다. 오랜 기간 미국 정부를 설득한 끝에 1909년 미국 메릴랜드주에 세계 최초의 칼리지파크 공항을 짓기로 했는데, 동생인 윌버가 직접 공항 건설의 감독을 맡았다.

요즘처럼 누구나 비행기를 타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였다. 보잉, 더글러스 등 항공사들이 군용기와 함께 여객기를 만들어 내기 시작하고, 공항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라이트 형제는 1903년 동력 비행기를 개발하면서 이 신기한 기계의 효용을 잘 알고 있었다. 오랜 기간 미국 정부를 설득한 끝에 1909년 미국 메릴랜드주에 세계 최초의 칼리지파크 공항을 짓기로 했는데, 동생인 윌버가 직접 공항 건설의 감독을 맡았다.

군 공항 해법

우리나라 최초의 공항은 1916년 여의도 공항으로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다. 광주에서는 1929년 일본 육군이 지금의 서구 상무지구에 임시 활주로를 만든 것이 시초다. 1938년 조선총독부 체신국이 항공우편 수송을 위해 이를 수리해 민간 비행장을 개장했고, 1942년까지 조선항공사업사가 여객 노선을 운항했다. 해방 후 1952년 광주 상무대에 민간 겸용 공항이 있었다가 1967년 지금의 광주공항으로 이전했다. 2007년 11월 서남권 거점공항인 무안 국제공항이 개항하면서 광주의 민간·군 공항이 모두 옮겨가기로 했지만, 여러 차

고 있는 모양새다. 공항은 운송기지, 물류기지, 도시 조성 등의 역할을 한다. 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야 함은 물론이다. 군 공항 설치에 해당 지역민의 뜻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역민이 원하는 대로 이전지를 결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토 방위, 국가 발전, 광역권 공항 배치 등의 요소도 논의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일각의 도를 넘어선 군 공항 이전 반대나 맥락 없는 유치 움직임에 국방부, 광주시, 전남도가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유현석 정치부 부국장 chadol@